
위 식도역류질환 환자에서 바륨조영역류 검사의 유용성에 대한 고찰과 신 분류 안의 제시

이대목동병원 진단방사선과 · 서해대학 방사선과*

장동혁 · 김대중 · 서정환 · 박영순*

목 적 : 본 연구는 위 식도역류질환의 환자에게 바륨조영역류검사를 적용하고 이를 평가하는 새로운 분류 안을 제시함으로써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따른 올바른 진단과 치료방침의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하였다.

대상 및 방법 : 2002년 3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인후두부 이상감각으로 본 병원 이비인후과를 찾은 환자 64명과 가슴쓰림 및 상복부통증으로 내과 및 가정의학과를 찾은 환자 26명 그리고 건강검진대상자 30명과 정상대조군 20명을 대상으로 바륨과 물을 이용하여 식도연동수축운동과 역류상태를 관찰하고 이를 5단계 즉, 위 식도의 역류가 없는 상태를 Grade 0(Normal), 경증역류(Minor reflux)가 있으나 식도의 연동수축운동에 의해 다시 위로 밀려 내려가는 경우를 Grade 1, 경증역류 상태에서 10초 이상 머물면서 중증역류(Major reflux)까지는 도달하지 않는 경우를 Grade 2, 중증역류가 있으나 식도의 연동수축운동에 의해 경증역류에 머문 경우를 Grade 3, 중증역류 상태에서 10초 이상 머문 경우를 Grade 4로 임의분류 하였다.

결 과 : 인후두부 이상감각을 주소로 한 피검자 64명 중 grade 0(normal)은 8명(12.5%), grade 1은 5명(7.8%), grade 2는 19명(19.7%), grade 3은 23명(35.9%), grade 4는 9명(14%)이었으며 이중 식도체부 연동수축운동저하(peristaltic contraction)는 27명(42.2%)에서 관찰되었다. 가슴쓰림과 상복부통증을 주소로 한 피검자 26명중 grade 0은 3명(11.5%), grade 1은 3명(11.5%), grade 2는 10명(38.5%), grade 3은 7명(26.9%), grade 4는 3명(11.5%)이었으며 이중 식도체부 연동수축운동저하는 10명(38.5%)에서 관찰되었다. 건강검진을 위한 피검자 30명 중 grade 0은 9명(30%), grade 1은 10명(33.3%), grade 2는 8명(26.7%), grade 3은 3명(10%)이었으며 grade 4는 관찰되지 않았고 식도체부 연동수축운동 저하는 11명(36.7%)에서 관찰되었다. 증상이 없는 정상 대조군 20명 중 grade 0은 11명(55%), grade 1은 4명(20%), grade 2는 5명(25%)이었으며 grade 3과 grade 4는 관찰되지 않았고 식도체부 연동수축운동 저하는 6명(30%)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결 론 : 식도의 연동수축운동 저하와 위 식도역류를 관찰하는 데는 바륨조영역류검사가 가장 유용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여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위 식도역류의 신 분류 안의 적용을 추천한다.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와 생활환경의 변화에 의한 역류성 질환의 증가로 볼 때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위 식도역류검사는 필요한 항목이라 사료되며 이중 가장 간단하고 부담없는 바륨조영역류검사가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